

건축 여행

Architecture Travel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by Kim, In - Chul

ESSAY

우리의 일이라는게 어떤때는 참 허무맹랑하게 느껴진다. 판을 벌려놓고 거미처럼 앉아 있으면 오다가다 걸려드는 일을 나 아니면 안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우연도 필연도 아닌 단순히 주어진 땅을 놓고 맥락을 따지고 환경도 살피고 역사를 걸어맨다. 결국 되어질 것은 그렇고 그런 것이 분명한데도 쉽게 착각하고 쉽게 흥분하는게 우리일 이라는 것이다. 이 일을 한것도 이제 20년이 넘어섰다. 선배들 틈에 끼어앉으면 아직 젊은축에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마흔다섯의 중년이다. 염색으로 감춘 반백의 머리와 처진 아랫배는 그동안의 세월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연필깎던 실습생에서부터 지금의 이자리까지 한우물 파는 것이 최선이라 믿고 한눈 팔지않고 살았다. 주어진 일만 꼬박꼬박해내는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날밤 새우기를 취미로 삼았다. 나를 몰라주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모자람을 먼저 생각하고, 까마귀가 더러운 손을 내밀어도 담담하게 마주잡아주며 지내왔다. 아직은 때가 되지않았다고 여유작작하며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다. 주변의 어리석음을 내려간 눈길로 시큰둥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올려다 보고있는 목표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 모이는 뜻맞는 친구들과는 서로서로 거들기에 인색하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집사람에게 몰리는 것 만큼이나 친구들이 의지가 된다. 모여앉아 떠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하는 일들에 재미가 들었다. 여건은 갈수록 나쁜쪽으로만 기울고 어디에도 기댈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싶어도 기왕의 벽들이 너무도 완강해서 계단든 다윗처럼되고 만다. 이런때는 시간이 약이란 말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세월만 가라시구려를 흥얼거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기로 한다.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어차피 그동안의 공부도 독학이었으니 계속 혼자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선협자들의 길을 뒤따라 확인해보는 루트를 선택한다.

그래서 떠난 것이 건축여행이다. 그동안 관광여행을 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위해 가는 여행은 이래저래 준비가 많다. 목적지의 선택, 대상물의 선정, 일정계획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보았더니 있더라가 아닌 보기위해 간 것이되기 위해 자료의 수집만이 아닌 예습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 그쪽에 경험있는 누군가를 내세운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책으로 모아둔 서로의 지식들이 공개된다. 여기저기서 모여진 지도들로 가이드북이 만들어진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19세기말의 중부유럽건축이다. 작년의 여행에서 만난 루드(Claude Nicolas Ledoux 1736 ~ 1806)가 힌트였다고나 할까 근대건축이 태동되었던 시기를 되짚어보는 시간여행이다. 최신의 것들과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여정의 큰 줄거리는 근대의 과정에서 맺어졌던 점점들을 잇는 선상에 두기로 한다. 언젠가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 근대건축의 어휘들을 새삼스럽게 공부한다.

모리스(W. Morris)의 「붉은 집」, 아르누보(Art Nouveau) 분리파(Sesession), 데스틸(De Stijl), 등등 알기는 하지만 맥을 잡지못하는 것들이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불경기 속에서도 피서준비로 한창일때 주섬주섬 챙겨든 카메라와 옷보따리를 들고 도망치듯 김포로 떠난다. 직원들 봉급이나마 제대로 주었으면 다행이고 휴가 보너스는 생각지도 못한 마당에 외유란 점연적은 것인데 놀러 가는게 아니라 이유 하나로 용기를 낸다. 같이 떠나지 못한 친구도 여럿이었으니 이래저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비엔나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오토 바그너(Otto Wagner 1841 ~ 1918) 분리파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깝지않다. 크림트(G. Klimt 1862 ~ 1918)의 그림과 함께 자신들의 시대양식을 추구했던 분리파 운동의 실체와 접한다. 홀라인(H. Hollein)과 힘멜블라우(C. Himmlblau)의 번쩍거림과 뒤틀림이나 훈더트바셔(Hundertwasser)의 눈요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부스럽기까지 하다. 분당을 연상 케하는 벨크분트(Werkbund) 주거단지를 둘러서 슈트트가르트로 행한다. 쾰스부르크의 관광은 어쩔 수 없는 시간소모다. 세계대전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도시를 옛모습으로 다시세워 놓은 곳이다. 오래전 이곳에 자리잡은 친구를 만나 그의 벤츠로 편안한 시찰을 한다. 바이센호프(Weissenhof) 주거단지의 한가운데 미스(Mes V. d Rohe)가 서있고 폴비지에(Le Corbusier)가 있고 샤로운(H. Scharoun) 등등이 있다. 1922년에 이일을 했으니 분당은 정확히 칠십년후이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만큼의 시차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영국인 스티링(J. Stirling)의 슈타츠 갤러리에서 우리보다 더 철저히 비워진 둥근 마당과 만난다. 더위가 더 짜증스럽다. 뒷북치기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내가, 우리가 한심해진다. 하이델베르그를 거쳐 북으로 오른다. 전형적인 중부유럽의 소도시인 다름슈타트에 이른다. 도시의 정점을 이루는 언덕위의 예술인촌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비엔나의 올브리히가 헷센의 영주를 클라이언트르헤 유겐트스틸(Jugendstil)을 꽃피우게한 곳이다. 대공관, 주택들 그리고 결혼기념관 등이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에 인간의 의지를 더하게 하려했던 당시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화가였던 베렌스(P. Behrens 1868 ~ 1940)가 건축가로서의 첫걸음을 한곳이기도 하다.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강가를 메운 프랑크푸르트는 한마디로 현대건축의 전시장이다. 웅거스, 마이어, 베니쉬 등등의 얼굴이 있고 최근 완성된 홀라인의 현대미술관은 외관보다 내부공간에서 우리의 기를 죽인다. 벨기에 국경을 넘기 직전에 만난 또하나의 미술관 역시 그의 것인데 독일의 현대건축에 대한 간관으로 홀라인을 내세우기에 우리가 없어 보인다.

브뤼셀에서 다시 세기말의 아르누보 앞에 선다. 빅터오르타(V Horta 1861 ~ 1947)의 호텔 타셀과 무제오르타, 어렵게 열고 들어간 내부의 벽과 계단과 천장에는 아르누보의 곡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호프만(J. Hoffman 1870 ~ 1955)의 스토크랫

저택은 내부공개를 하지않아 전부를 볼 수 없었지만 비엔나 분리파의 바람이 이곳까지 불어왔던 것을 알게 해준다. 크롤(L. Kroll)의 기숙사와 알마 역사는 이번기행의 주제와 벗어나 있어 확인정도로만 그친다. 처음 발을 딛는 로텔담에서 데스틸의 오우트(J. J. P. Oud), 다음의 유틀레트에서 리트벨트(G. T. Rietveld)의 주택을 발견한다. 절대조화를 이상으로 하는 몬드리안의 회화와 이들의 건축을 연결시키는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 블롬(P. Blom)의 기묘한 주택들의 옆으로 끼쳐두고 암스텔담으로 간다. 베를라헤(H. P. Berlarge 1856 ~ 1934)의 벽돌조 증권거래소와 크러크(M. de Klerk) 건물들에서 발견되는 조직조의 미학은 우리의 벽돌집보다 성큼 앞서 있다.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에 앞서서 피터스(J. M. Peeters)와 스태(M. Stam) 등의 실험정신이 있었다는 것은 쿨하스(Kem Koolhasse)의 출현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헤이그에서 밤베로 건너간 영국은 피로해진 육체와 무디어진 감각때문에 더이상 자극을 주지 못한다. 늦은 아침식사를 기다리다 조우한 로이드사옥의 기계미학에 질려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여행의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의 일들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해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영국이 아닌데 그걸 두나절에 보겠다는 것은 무리니까 나중에 다시 오기로 하고 이만 접어 두자는 의견들이 솟아나지만 극성스런 몇 친구덕에 벤츄리(R. Ventury)부부의 국립미술관 건립과 스티링의 부고를 들었지만 아 그랬던가 하고 말 정도로 피곤만 쌓였다.

극성스러웠던 더위와 함께 여행도 끝났다. 남은 것은 수백장의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일과 짐어들고 온 팜프렛과 책들을 간추리는 일이다. 떠나기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도려놓아둔 자료들을 그 앞에 가서야 허겁지겁 들춰보던 게으름이 재발될까봐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정리해 두려고 서두른다. 하지만, 그간 밀린 일들과 주변이 편안하게 놓아두지 않는다.

나누어 맡은 보고서 쓰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모자라는 자료를 보충하느라 책도 모으고 옛 교과서까지 꺼내본다. 현장에서 읽어내지 못했던 여러가지가 나중에야 드러난다. 올브리히가 마흔하나라고 요절한 체코출신의 건축가였다는 사실도 돌아온 뒤에 책으로 안 것이다.

산업화로 인해 황폐되어 있었던 19세기말이라는 활동무대에서 삶의 생기를 소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양식의 추구를 시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20세기말인 지금의 세상은 그때와는 또 다르게 너무 분열되고, 분노에 가득차 있고 오염되어 있어서 예술이 제공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어쩔 수 없다. 해보는 수밖에는 ...

안타까운 것은 확인을 위해 들춰본 20년전의 옛교과서에 두번째번 밑줄이 그어진 것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